

현대미술과 선보의 만남 'ART in SUNBO'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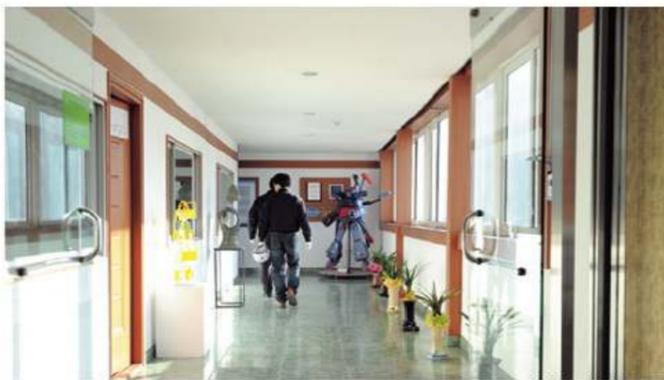
메세나 협력 공공 미술프로젝트 사내 전시
시선 끄는 현대미술 작품으로 내·외부 관심 받아



복도에 왜 로봇이?
선보 사무동 계단의 밝고 명랑한 아이들 모습이 담긴 벽화를 지나 본사 사무실을 들어가는 찰나 푸른 빛깔 로봇이 눈에 띈다.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라디오, 휴대전화, 커피포트 등의 용품을 조합해 만든 로봇으로 일상 생활에 가까이 있는 영웅의 또 다른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지역과 함께 공존하는 기업으로서 부산

예술 문화 발전을 위한 후원을 아끼지 않은 우리 회사는 지난해 메세나 지원사업에 참여해 '부산 꽃마루 국제자연예술제' 개최 등을 후원해 왔다. 이에 부산자연예술인협회는 후원기업인 우리 회사에 감사의 뜻으로 '메세나 협력 공공 미술 프로젝트 ART IN SUNBO' 전시를 한 달간 진행했으며, 12명 작가의 조각과 회화 등 25점의 현대미술 작품이 사무동 건물 계단과 식당 곳

곳에 전시됐다.
또한 지난 8일에는 부산 시립미술과 김중기 학예사의 작품설명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와 가족들을 초대하여 평소 미술 작품을 접하기 어려웠던 근로자들에게 문화 예술을 가까이서 접하며 향유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 하였다.



노동부로부터 '사업 내 자격검정 인증' 받아 공신력 획득 및 중장기 경영목표 달성계기 마련



우리회사는 지난 12월16일 용접기술1,2급, 배관제작1,2급, 배관조립1,2급 종목에 대해 노동부로부터 사업 내 자격검정 인증을 받아 검정개발비와 검정운영비에 대한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지난 해 용접, 조립 등 생산기량에 대한 표준

화 및 향상을 목적으로 전략적으로 도입 및 시행되었던 '사내 기술자격증제도'는 시행 결과 총 211명이 각 종목별 1,2급 취득하였으며 이들에 대해서는 동기부여 및 자격취득 유지를 위해 자격증과 함께 포상금이 수여되었다.
또한 '사내 기술자격증제도'는 용접기술, 배관제작, 배관조립 3개의 종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종목은 다시 기량 정도에 따라 1~3급으로 나누어진다.

'UP스쿨' 감사패 지역사회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 아끼지 않을 터

우리 회사는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상공회의소, 부산일보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교육사랑나눔 'UP스쿨' 결연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부산교육 발전에 크게 기여한 공으로 감사패를 받았다.
부산시교육청에서 지원하는 UP스쿨 1사1교 협약은 학교와 기업체가 결연해 기업은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장학금이나 기타 교육시설 개선비 등을 지원하고, 학교는 지역 기업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자 실시해오고 있는 제도이다.



헌혈로 사랑의 실천을



지난달 26일 우리회사 1공장 앞 헌혈버스는 사랑을 실천하기 위한 우리회사 직원들로 북적이었다. 새해를 맞이해 헌혈문화 확산에 힘쓰기 위한 취지로 마련된 이번 단체헌혈에는 최고급대표이사와 임원진 등 본사에서만 약 50여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그 뜻을 함께 했다.

오세진 사원은 "사장님이 솔선수범해 헌혈을 유도하고, 함께 사랑 나눔을 실천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라고 말했다.
유일한 여성 헌혈 지원자였던 양수경 사원은 한번도 헌혈한 적이 없어 이번 기회를 통해 헌혈에 참여하고 싶었지만, 건강상의 이유로 다음을 기약해야 했다. 양수경 사원은 "꼭 해보고 싶었는데 아쉽다. 다음에는 꼭 사랑 나눔에 동참하고 싶다."고 전했다.
우리회사는 1공장과 3공장, 구평공장이 지난달 26일 단체헌혈에 참가했으며 2공장도 29일 단체헌혈에 참가했다.

회사 소식

신입 임원



신입 임원 장두생 상무

선한 눈빛으로 강렬한 열정과 도전 정신을 오롯이 뽐내며 발전하는 선보와 함께 더 높은 비상을 준비 중인 장두생 상무를 만나보았다.

울산현대중공업에서 경력을 쌓았던 장두생 상무가 선보에 들어온 지 이제 겨우 2주 남짓. 선보공업과 인연을 맺으면서 부산에서의 생활도 시작됐다. 부산에 대한 첫 느낌은 어떨까?

“중심기만 생각하고 부산은 복잡한

도시라고 생각했는데, 다대표에 집을 마련하면서 교통도 편리하고, 공기 좋고 경관 좋은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해양구조설계일만 16년, 설계총괄 엔지니어링 매니저 5년, 프로젝트 매니저먼트 7년 등 약 28여 년간 현대중공업에서 조선 해양 관련 커리어를 쌓아온 장두생 상무에게 선보공업은 어떤 회사로 다가왔는가 질문하자 “보디나에 삶에 가치를 구현하고 더 큰 행복을 추구하지는 모토가 와 닿았습니다. 꿈이 크시고 솔직한 대표이사님에게서 배울 점도 많은 것 같고, 직원들도 친절하고 협조적이라 긍정적인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라며 우리회사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주어진 요건에서 최선을 다해 최고의 결과를 도출하는 것을 중요시 여기는 장두생 상무에게 업무란 ‘응통성’의 미학이다.

“이상적인 목표가 아무리 커도 현실적이지 않으면 최고의 성과가 나타나지 않아요. 장점을 도출해 내되 현실성 있는 목표에 집중해 앞으로 나아간다면 틀림없이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해 낼 것입니다.”

선보공업에서 새로운 발걸음을 시작하는 장두생 상무는 “해양 관련 사업 분야에서 최선의 역량을 발휘해 선보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한가지 목표를 말씀드리자면 기자재의 국산화입니다. 조선기자재들은 대부분 해외에서 사들여오는 경우가 많습니. 하지만 선보의 제작능력과 외부설계, 구매를 활용해 국산화시켜 기술 개발과 원가절감의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고 싶습니다.”라고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다.

“일이 주어진 것은 신의 축복이다” 라는 말을 항상 마음에 두고, 새로운 일에 두려워

하지 않고 탐구적인 자세로 매사 도전하는 장두생 상무.

선하지만 또렷한 눈빛과 그 속의 열정으로 우리회사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해본다.



우리 부서 최고! 자재조달부

믿고 협력하며 최상의 컨디션을 끌어올리는 우리 회사의 중추 ‘자재조달부’

책임 경영 확립을 통한 내실 경영강화. 2010년 우리 회사의 경영방향 중 하나다. 지난해 우리 회사 경영성과 단체 대상 수상 영광에 빛나는 ‘자재 조달부’ 최동배 부장을 만나 자재조달부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말 그대로 자재 조달을 담당하는 자재 조달부는 유니트 종합현황을 기준으로 도면 이벤트와 생산중요성을 확인하고 맞게 접수, 생산 중요점에 맞추어 적시에 자재공급을 돕는 부서다. 특히 경쟁력 있는 단가로 자재를 적기 적소에 공급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자재조달부의 인원은 총 10명. 이번 수상에 다들 일에 보람을 느낀다는 반응이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는데 회사에서 챙겨주어 고마움을 표현했다.

자재조달부 최동배 부장은 “재작년 까지 힘든 일이 많았습니다. 부서원이 바뀌면서 업무에 생긴 공백과 물량에 대한 대처가 미흡해 어려운 해를 보냈

어요. 하지만 지난해부터 담당자들의 역량이 향상되고 시스템도 몸에 베고 자재 공급률이 높아지면서 급물살을 탄 것 같습니다. 표면적으로도 지난해 자재공급률이 97%까지 올라가는 등 나름 인정 받는 한 해라 다들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라고 전하면서 내부의 화합에 대한 자랑도 잊지 않는다.

“부서가 잘되는 데는 내부적인 요인도 크게 작용하는 것 같아요. 우리부서는 항상 상부상조하는 분위기입니다. 내부적으로 취미 생활이나 단합대회도 함께하고, 단합된 모습을 보임으로서 조직의 중추인 자재조달부가 업무에도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올해는 내 외부적으로 힘든 한 해가 될 것

이라는 이야기 속에 자재 조달부는 기존의 시스템을 보강하며 회사의 신규사업 투자에 대한 조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최동배 부장은 올해도 고생할 부서원들에게 격려를 아끼지 않는다.

“항상 부족한 점이 많은 저를 믿고 따라와 주셔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전반적으로 경기가 어렵다 보니 단가문제나 납기에 대한 변화가 심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대응책을 마련하고 함께 신뢰하며 난관을 극복했으면 합니다.”

사하구청 여권 발급

올해부터 사하구청에서도 여권발급이 가능합니다. 여권 발급을 원하는 사유는 신분증을 지참해 사하구청을 방문하면 됩니다. <문의: 사하구청 민원봉사팀>

여권 재발급 수수료 인하

여권을 다시 발급 받을 때 지급하는 수수료가 현행 35,000~40,000원에서 25,000원으로 인하되며, 수수료를 신용카드로도 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유익한 정보

2010년부터 달라지는 제도

급여의 25% 이상 써야 카드 소득공제
총급여의 25%가 넘는 신용카드 사용액 중 20%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한도도 연300만원으로 줄어듭니다.

4월부터 대형TV 등 개별소비세 과세
4월 1일부터 TV, 냉장고, 에어컨 등 소비전력률이 상위 10% 제품에 대해 개별소비세(5%)가 매겨져 값이 오릅니다.

모든 국제 신용카드 납부가능
모든 국제를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됩니다. 납부 한도도 현행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요일제 차량 보험료 할인 확대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하는 차량 보험료가 대폭 할인됩니다. 대다수 보험사가 요일제 상품을 내놓고, 할인폭도 8.7%에 달합니다.

도로명 주소, 법적 주소로 병행 사용
도로명 주소를 법적 주소로도 사용하게 됩니다. 단, 혼란을 막기 위해 2011년까지 기존 주소도 병행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홍렬 상무의 이 한권의 책

종이로 사라지는 숲 이야기

하얀 종이에 감춰진 비밀을 밝혀낸 충격적인 보고서



인간에게 나무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이며, 인간은 나무를 원료로 한 수많은 생산품을 사용하고 있다. 특히 현재 산업계가 숲에서 벌목하는 나무 가운데 42퍼센트는 펄프의 원료로 사용되고 있으며, 펄프로는 종이를 만든다.

저자는 유럽, 러시아, 동남아시아, 북미까지 전 세계의 숲과 종이 생산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직접 목격하고 그려내었

다. 종이 소비와 제지산업이 환경뿐만 아니라 사회에 미치는 파급 효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소비자가 직접 벌목을 하거나 숲을 파괴하라고 종이를 구매하는 것은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숲을 파괴하고 있음을 알려준다.

벌목에서부터 종이가 만들어지고 처리되는 과정에서 인권 유린, 지구 온난화, 유독성 화학물질 배출 등으로 인간과 자연 모두 병들고 있다. 하지만 세계의 종이 소비량은 날로 증가하고 있다. 저자는 종이를 통해 발생하는 환경 문제를 보여주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생각하

게 만든다. 종이 소비문화의 근본적인 변혁을 강조한다.

이 책은 종이를 만들기 위해 전 세계 숲에서 어떤 일이 자행되고 있으며, 우리가 종이를 소비하면서 어떤 대가를 치르고 있는지를 하나하나 짚어본다. 나무를 벌목해 종이를 만들기 시작한 것은 150년에 지나지 않지만, 현재 지구의 원시림은 3분의 1밖에 남지 않았다고 한다. 종이의 편리함에서 이제는 종이를 절약하면 어떤 혜택이 돌아오는지에 대해 논의해야 할 때임을 이야기하는 책이다.

회사 소식 | 시산제

우리 회사 “시산제” 진행

백호랑이의 기상을 본받아 힘차게 2010년을 향해 도약하고자 우리회사는 지난달 첫 췌주 토요일 금정산 북문에서 기술영업부와 설계부 부서원 및 임원진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0년 한해의 안녕을 기원하는 시산제가 진행됐다.

이번 시산제에서 올 한해 회사의 발전과 무사고를 기원하고 특히 2010년 매출액 목표가 사상 최대인 2010억인 만큼 전체적으로 함께 힘을 모아일하자는 의지를 다졌다.



■시산제 기원문

維歲次 서기 2010년 1월 10일 선보가족은 天地神明께 고합니다.
만물의 근원인 우주와 (대)주를 지배하는 天地神明의 가호와 은덕에 힘입어 선보가족은 지금까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였으며 회사는 지속적인 성장을 거듭하였습니다.
아름다운 자연 우리의 강산을 다스리시는 山神에게 고합니다.
아름다운 강산을 아끼고 사랑하는 선보가족은 자비로우신 山神의 가호와 은덕으로 지금까지 즐겁고 유쾌한 산행을 하였습니다. 올해도 선보가족이 산에 오를 때면 자연의 순수하고 아름다운 자연의 진리를 가슴으로 받아들여 깨끗하고 순수한 마음을 가슴깊이 한 아름 담아 주시고 무사히 산행을 마치시고 기쁜 마음으로 하산하여 아름다운 산이처럼 변하지 않는 마음으로 아름답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도록 보살펴 주소서.
넓고 광활한 하늘과 대지를 지배하고 다스리시는 자비로우신 天地神明에게 고합니다.
성실하고 정직한 선보가족에게 사랑과 자비를

베푸시어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직장이 되게 하시고 안전하고 무탈하며 건강이 넘치게 도와 주소서.

번번이는 창의와 혁신적인 사고로 추진하는 과제마다 훌륭한 결실이 나고 추진하는 새로운 사업마다 빛나는 성취를 이룰 수 있도록 보살펴 경영목표를 기필코 달성할 수 있도록 급이급이 보살펴 주소서.

선보가족이 생산한 모든 제품이 고객으로부터 칭송받아 고객으로 사랑받는 기업이 되게 보살펴 주시어 우리의 시기와 명성이 하늘높이 휘날리도록 하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서 天地神明에게 제를 올리는 모두에게 가족들의 건강과 행복 속에 각자의 소원을 성취하게 하시며 개인의 성과가 일취월장하여 넉넉한 수확을 보게 하소서.

간소하나마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청결한 제수와 과포를 준비하여 天地神明과 山神에게 올리오니 음향하소서.

尙饗

서기 2010년 1월 10일
선보가족 일동



회사 소식 | 3공장

3공장, 삼성중공업 감사 메일 받아...



우리 회사 3공장 SILENCER 설계 및 제작팀은 1월 30일 삼성중공업으로부터 감사의 이메일을 받았다.

이번 감사 이메일은 까다로운 선주 요청에 대하여 신속하게 제품을 재설계하여 우수한 품질의 제품개발 및 납품을 요구일자에 정확히 처리해 준데 대한 감사의 이메일이다.

이번에 요청된 선주 요구사항은 특정 항구 운항시 배에서 1km 떨어진 거리의 소음이 39dB이하로 매우 조용하게 운행되는 조건이었으며, 우리 회사 3공장 직원 일동은 이에 만족하도록 Silencer에 대하여 설계변경 작업 등을 불철주야로 노력하여 요구일자에 정확히 납품하였으며, 시리즈 호선에도 신속히 대응하도록 조치하여 고객사 및 선주로 부터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게 되었다.

우리 회사는 앞으로도 어떠한 고객의 까다로운 요구도 고품질의 제품으로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품질 및 고객 만족도 향상에 더욱 노력할 것이다.

강서구 녹산공단 중심가에 위치한 중앙후렌지공업(주)은 지난 1978년 창립해 해수로 32년 된 후렌지(Flange) 업계에서 가장 오래된 회사다.

선보와는 IMF 때 처음 인연을 맺게 됐다. 선보에서 제품을 의뢰했을 때 이용희 대표이사는 단번에 계약을 체결했다. 선보만의 깨끗하고 정직한 매력에 믿음이 갔단다.

"선보 직원들은 업무에 있어 깨끗한 것 같아요. 정직한 직원들과 함께 하는 선보공업은 굴곡없이 성장할 요건을 갖추고 있는 좋은 회사라 생각합니다."

젊어서 연구 하나 없는 경성도로 내려온 이용희 대표이사에게 중앙후렌지는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젊음과 땀으로 연결된 소중한 자산이다.

30여 년 간 기업을 경영하면서 흔들리지 않고 우직하게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이유에 대해 이용희 대표이사는 몇 가지 삶의 철학을 들려주었다.

"신용이란 누구에게나 같은 단어이지만 그 가치는 각자의 신념에 따라 다르겠지요? 신용의 부피를 키우려면

최동배 부장이 추천하는 협력업체 탐방

신용의 부피를 먼저 키우는 기업 중앙후렌지공업(주)

'정직' '부지런함' 그리고 '인내' 라는 세가지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세가지 노력을 바탕으로 신용을 키우고 이것은 미련해 보이는 방법일지라도 가장 빠르고 현명한 성공의 방법입니다."

오랜 기간 회사를 운영해 온 만큼 수많은 어려움의 시기를 겪으며 사라지는 회사들도 많이 봤다는 이용희 대표이사는 어려울 때를 대비한 준비와 인내로 해결책을 찾고 어려울수록 더 미래를 바라보고 전진하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IMF 때나 최근 금융위기 등 큰 어려움이 있을 때도 준비된 사람은 흔들리지 않더군요. 좋을 때는 어려울 때를 준비하고 어려울 때는 좋을 때를 생각하며 차근차근 일하면 괜찮을 것입니다."

선보와 거래한 지는 10년이 넘어간다. 선보 외에도 대부분의 회사들과 장기거래를 하고 어떤 곳들은 거래한 지 30년이 넘어간다. 그 비결 역시 신용으로 정직하고 경쟁력 있는 제품을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했다.

30년 전통 중앙후렌지의 미래 계획은 어떤 걸까. 이용희 대표이사는 몇 년 전부터 신사업 계획에 대한 공부와 조사를 통해 올해 플랜트 쪽으로 사업 확장을 위한 포항 공장을



준비에 들어갔다. 그는 "후렌지 시장은 한정돼 있고 발전을 위한 신사업 확장 조사를 몇 년 전부터 시작했어요. 30년동안 철을 만졌으니깐 이번에도 철저한 대비와 계획 그리고 지금껏 쌓아온 신용을 통해 좋은 결과를 내고 싶습니다."

야망이 있는 사람은 어떤 분야에서든 성공을 꿈꾼다. 성공의 확률이 1%에 지나지 않을 지라도 꿈을 꾸고 그 꿈을 향해 달려나가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 사람들에게 성공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부'와 연결되는 경우가 많은 듯하다. 여기 중앙후렌지 공업(주) 이용희 대표이사와 30분만 이야기를 나누어보자. 성공의 의미는 참 다양함을 알게 될 것이니 말이다.

생생 현장의 소리



이재민 대리

콜롬버스의 달걀 같은 '발상의 전환'을 꿈꾸는 젊은이

선보 사보에 유독 많이 띄는 이름이 있다. 그 이름은 바로 '이재민 대리'. 이번 호 생생현장의소리 주인공이자 우리 회사의 교육과 혁신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이재민 대리를 통해 생생한 현장의 소리를 들어보자.

요 가정을 이루니까 삶이 윤택해지고 안정된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선보에 입사한 이후 개인적으로도 안정됐으니 선보는 저에게 복덩이예요.”

이 대리는 1년 6개월 간 생산관리팀에서 근무한 후 TPT(경영혁신 사무국)에 발탁되어 지금은 경영기획팀에서 경영혁신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경영혁신팀이 하는 가장 큰 역할은 회사의 큰 틀을 잡아 프로세스를 정립시키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실질적인 전사계획, 진행 모니터링, 실적발표 등으로 회사가 성장하는데 정면으로 도전하는 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경영혁신을 위한 교육의 역할이 중요해지며 회사 전체 교육관련 업무도 담당하고 있는 이 대리에게 너무 많은 일이 힘들지 않느냐고 묻자 “도전적인 목표를 가지고 전 조직원이 함께 하는 모습에서 보람을 찾을 때가 더 많아 괜찮다”고 답한다.

그가 선보에서 일하며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으로 뽑은 것은 지난해 12월 '경영목표 달성'을 위한 숯불고기 체험이었다.

“책상에 앉아있던 부서장님들이 직접 숯불을 건고, 송판 퍼포먼스 등을 하는 모습을 보며 기획 의도보다 높은 성취감을 나눠줄 수 있어 좋았습니다. 교육을 통해 관리자들이 변화하는 모습을 보니 그동안의 힘든 일들이 보람있게 마무리되는 것 같아 행복했습니다.”

모범상 기쁘지만, 음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눈길 주었으면

지난해 연말 우리 회사 모범상을 수상한 이 대리의 소감은 “기쁜 마음은 크지만 내 자리는 눈에 띄는 자리라 잘했던 부분이 부각되어 이런 좋은 상을 받은 것 같습니다. 내가 열심히 한 게 50%라면 가진 업무가 50%를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에는 더 다양한 사람들이 인정받고 수상할 수 있으면 해요. 음지에서 고생하시고 생산의 한 축을 담당하는 부서들을 재조명하고 격려할 수 있으면 합니다.”

Leading 부서이자 동시에 조력자 역할로 다가갈 것

혁신의 끝은 성공과 변화지만, 혁신을 위한 첫걸음이 그리 녹록지만은 않다. 회사도 이 대리로 처음이었던 경영기획 업무를 시작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소리는 ‘시키는 부서’라는 불평이었다.

“사장님과 가장 가까운 부서이다 보니 경영 의도에 따라 싫은 소리, 힘든 일도 전해야 합니다. 불평의 목소리를 흡수하고 조직의 융화와 혁신을 동시에 이루어내는 부서가 되기 위해 다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콜롬버스처럼 간단하게 달걀을 세울 수 있다. 하지만 콜롬버스처럼 그것을 앞장서서 먼저 실천할 수 있는 것도 누구나 일까?

어렵고 힘든 혁신의 마지막은 더 큰 성공과 밝은 미래일 것이라 말하는 이재민 대리는 끝으로 늘 곁에서 힘이 되어주는 아내 미현이와 아이들은호에게 사랑한다 는 말을 전했다.

개인적으로 선보는 복덩이예요

지난 2006년 상반기 공채로 선보와 인연을 맺은 이재민 대리에게 선보는 복덩이다.

“선보에 입사하고 처음엔 생산관리를 담당했는데, 그 때 포워딩 업체에 근무하던 지금의 부인을 만났습니다. 결혼을 하고 아이가 생기면서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만들어졌어

칭찬 릴레이 제 44호



박관호 주임

꼼꼼한 기록으로 기억의 한계에 도전하는 사람

기록은 기억을 지배한다는 말이 있다. 기록을 통해 한 번 더 꼼꼼하게 업무의 방향을 체크하고 또 메모하는 선보의 메모왕 박관호 주임이 2월 칭찬릴레이 주자로 선정됐다.

Q 이번 호 선보가족 칭찬릴레이 주자로 뽑히셨는데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난번에 '생생현장의소리' 인터뷰를 했었는데 이번에 칭찬릴레이 주자로 선정돼 부끄럽기도 하지만 기분이 좋네요. 특히 성실하고 성격 좋은 김유미 사원이 선정해 주어서 감사할 따름입니다. 더 잘하라는 의미로 알고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Q 평소 어떤 마음가짐으로 근무하시나요?

지난 2006년에 입사해 2월 1일자로 선보 5년 차가 됩니다. 사금을 담당하고 있고, 직원이지만 업무에 있어서는 '내 회사'라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임하고 있습니다. 또한 메모를 생활화하며 꼼꼼히 맡은 일에 대한 기억을 기록하는 편입니다. 메모는 기억 한계에 대처할 수 있는 기능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Q 앞으로 어떤 선보인으로 남고 싶나요?

조선경기가 불황인데 이런 때일수록 보다 업그레이드 된 모습으로 모두 힘을 모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르는 게 있으면 공부하고, 회사와 함께 성장하며 회사에 보탬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또한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 지금처럼 밝고 활기차게 생활하며 회사생활을 하고 싶네요.

Q 다음 칭찬릴레이 주자를 추천한다면?

대한엔지니어링 추용한 반장님을 추천합니다. 매사 꼼꼼하게 일하고 어떤 일이든 항상 질문하고 탐구하는 자세를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적극적이고 활기찬 마음가짐으로 생활하시는 추용한 반장님을 추천합니다.

칭찬 릴레이는 서로가 서로를 칭찬하는 아름다운 문화가 선보에 정착하기를 바라며 펼쳐고 있는 캠페인입니다.

선보 가족 기념일

본사 생일	
경영기획	이재민(2/12)
기술영업	박종현(2/7)
설계3팀	주원석(2/11)
설계4팀	오승관(2/21)
생산관리	장기봉(2/1)
고객지원	노재희(2/1)
기술연구소	오영석(2/15)
1공장	손환수(2/18), 김수현(2/2), 안종록(2/18), 이철현(2/1), 최근돌(2/28)
대평	한충민(2/8)
신덕	김영호(2/5)
자재과	서원수(2/1), 조경선(2/17)
재원(ENG/신원)	유원중(2/14), 최복식(2/2)
우성	김태영(2/28)
3공장	임종화(2/8), 김성훈(2/1), 박선호(2/17)

본사 입사기념일	
품질보증부	이수근(2/18)
고객지원	이상훈(2/1)
1공장	신승훈(2/1), 강현욱(2/1)
3공장	박재용(2/14), 이도희(2/8)

구평공장 생일	
품질보증	김영호(2/18)
대한ENG	이홍수(2/14)
보성산업	김태준(2/10), 오상호(2/23), 송정호(2/10), 박래문(2/25)

구평공장 입사기념일	
품질보증	김지훈(2/2)

영도공장 생일	
자재운영	김수현(2/7)

목포공장 입사기념일	
생산관리	이경화(2/28)
생산부	반봉(2/1), 서순일(2/21)
설계부	오승관(2/21)
예일ENG	김종호(2/15), 예일ENG 김희(2/18)
지디산업	김기명(2/12)
지디테크	영태현(2/27)

틀린 그림 찾기

5곳이 있습니다

안정빈 과장

